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국내 국공채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채권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 제1호[채권])에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하는 주식모투자신탁(카디안 퇴직연금업종일등 증권모투자신탁[주식])에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의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신용위험을 최소화 하면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 신탁재산의 40% 이하를 대형 우량주 중심의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348억 원

-채권모투자신탁 1,043억 원

-주식모투자신탁 984억 원

펀드유형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 채권편입비: 60% 이상
- 주식편입비: 40% 이하

설정일

(운용펀드 : 2006년 01월 05일)

- 클래스 C : 2011년 11월 01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18일

- 클래스 C-F : 2012년 03월 30일

벤치마크 KOSPI 35% + 매경BP종합(국공채) 4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20% + KAP Call 5%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4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5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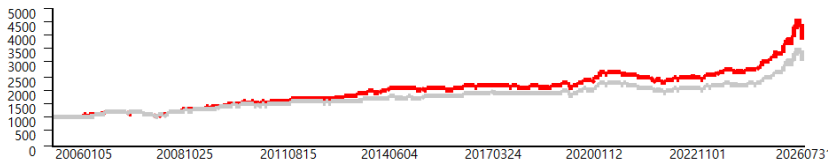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설정이후
운용펀드	-10.47%	-0.36%	9.53%	33.23%	46.01%	60.17%	53.07%	301.07%
클래스 C	-10.53%	-0.56%	9.11%	32.20%	43.73%	56.42%	47.10%	138.88%
클래스 C-E	-10.51%	-0.49%	9.25%	32.54%	44.49%	57.66%	49.06%	82.31%
클래스 C-F	-10.49%	-0.43%	9.38%	32.85%	45.17%	58.78%	50.84%	140.24%
벤치마크	-7.52%	1.75%	11.20%	30.98%	43.21%	52.38%	42.21%	218.82%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낸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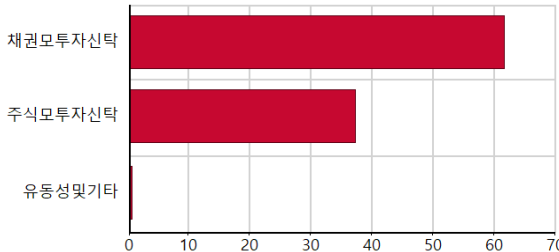
출처: AITAS시스템

— 운용펀드기준가 — BM기준가

자산 구성 현황 (2026년 07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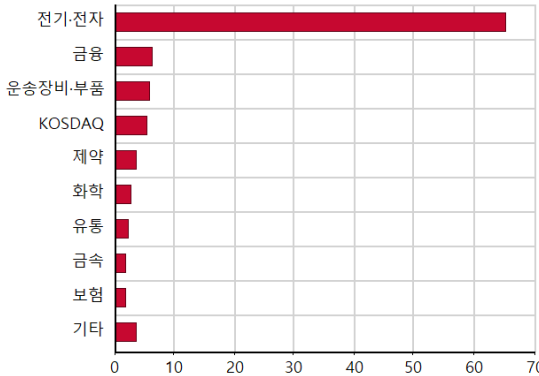
<전체>

순위	자산명	비중(%)
1	채권모투자신탁	62.0
2	주식모투자신탁	37.2
3	유동성및기타	0.8



<주식 업종별>

순위	자산명	비중(%)
1	전기·전자	65.2
2	금융	6.3
3	운송장비·부품	5.8
4	KOSDAQ	5.6
5	제약	3.9
6	화학	2.9
7	유통	2.6
8	금속	2.2
9	보험	1.9
10	기타	3.7



자산별 상위 보유 종목 (2026년 07월말, 모투자신탁 기준 종목비중)

채권TOP5		비중(%)	주식TOP5		업종	비중(%)
국고채권02750-2812(25-10)		14.1	삼성전자		전기·전자	32.0
국고채권03500-2906(26-5)		8.6	SK하이닉스		전기·전자	24.5
삼성증권25-2		7.7	SK스퀘어		금융	2.8
다올투자증권 20260615-92-8(단)		4.8	삼성물산		유통	2.5
국고채권03375-3103(26-3)		4.7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	1.9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와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7월 KOSPI는 전월 대비 22.19% 하락한 6,595.45, KOSDAQ은 21.11% 하락한 719.76pt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월초부터 AI 투자 사이클 둔화우려와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며 하락 출발한 지수는 수급 불안이 심화되며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6월 CPI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 및 금리 인상 부담이 완화되며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지수는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Capex 계획 발표에도 투자 확대보다 수익성과 현금흐름 부담으로 시장의 우려가 지속되며 지수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 후반에는 중국 CXMT의 성장, SK하이닉스 실적 기대치 하회 및 주주환원 기대감 소멸로 국내 반도체 경쟁력과 이익 전망에 대한 우려가 재차 확대되었고, 미 연준의 매�파적 신호와 중동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다시 더해지며 KOSPI는 5,500pt대까지 밀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7월 마지막 거래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실적 서프라이즈를 통해 AI투자가 실제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여기에 대형 헤지펀드 청산에 따른 수급 부담 완화와 최대원 SK 회장의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지며 KOSPI는 하루만에 17.91% 폭등,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7월 낙폭을 일부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정유, 섬유·의복, 은행 업종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전자부품, 반도체, 인터넷 업종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달러 환율은 1,441.10원으로 전월 대비 6.51% 하락했고, WTI 기준 국제유가는 전월대비 21.83% 상승한 84.6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3.6조원을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6조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펀드는 월간 수익률 -27.82%를 기록하며 벤치마크지수 수익률을 -5.63% 하회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증권, 건설, 기계 등 주가 조정을 예상하고 언더웨이트로 전환한 업종이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으나 KOSDAQ150 IT, 반도체 및 KOSDAQ150 의약 업종이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LG 이노텍, HD현대일렉트릭 등 미보유 종목의 주가 하락이 상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2분기 실적 호조를 예상하고 편입했던 심텍, 반도체 장비인 브이엠, 반도체 소재인 티에스이 등이 반도체 업종의 급락과 함께 펀드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반도체 시장 급락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도체, 전자부품, KOSDAQ150 IT 업종에 대한 비중을 축소하고, 급락에 따른 주가 매력에 발생한 기계, 조선 등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으로 인해 소외되었던 의약 업종 대형주와 2분기 실적 호조 및 정체마진 강세가 예상되는 정유 업종, 주가 하락에 따른 가격 매력에 발생한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비중을 상향하였습니다.

7월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 격화와 원/달러 환율 급등,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확대가 맞물리며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6월 수출이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소비자물가도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며 3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50원대를 상회하면서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상 경계가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 긴장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금통위를 앞둔 외국인 국채선물 매도 확대가 더해지며 시장 약세가 심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로 25bp 인상했으며, 성장률과 근원물가 전망 상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향후 추가 인상 여부는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시장은 일시적으로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발표된 2분기 GDP가 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을 상회한 데다, 미·이란 전쟁 격화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재차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국고채 금리는 3년물 3.953%, 10년물 4.445%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했고, 투자심리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후 미국 6월 CPI와 PPI가 예상을 하회하며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미·이란 교전 중단 기대에 따른 국제유가 급락과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수 전환이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월말에는 증시 조정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원/달러 환율 하락, WGBI 자금 유입이 더해지며 금리는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국고채 3년 금리는 전월대비 6.3bp 상승한 3.760%, 10년 금리는 19.2bp 상승한 4.262%로 마감했습니다. 펀드는 모 펀드 기준(보수 차감 전)으로 월 중 약 +0.1836%의 수익률을 달성하여 벤치마크를 약 0.0885%p 하회하였습니다. 채권 성과는 월 중 약 +0.26% 수익률을 달성하여 벤치마크를 약 13.4bp 하회하였습니다. 월 중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펀드 듀레이션은 벤치마크 대비 -0.18~-0.09년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8% (판매 0.535%)
- 클래스 C-E : 총 연 0.533% (판매 0.268%)
- 클래스 C-F : 총 연 0.295% (판매 0.03%)

(공통사항)

운용 0.23%, 신탁 0.02%, 사무관리0.01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7월 31일 대폭등에도 불구하고 7월 월간 KOSPI 수익률이 -22.1%로 1990년 이후 역대 3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KOSPI 지수는 낙폭 과대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거 대형 약재였던 90년 3저 호황 버블 붕괴, 97~98년 외환위기, 00년 닷컴 버블 붕괴 등의 사례들과는 달리, 현재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 될 만한 징후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8월 KOSPI는 저점을 높여가는 반등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합니다. 2분기 실적을 통한 빅테크들의 Capex 확대 기조 및 AI 비즈니스 성과 재확인, 반도체 실적 발표 이후 주도주를 중심으로 한 3~4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가시성, 글로벌 레버리지 펀드들의 강 제 매도세 진정 등이 저점 확인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관건은 주가 회복의 강도와 지속성입니다. 이는 AI 산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 완화,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양상이 결정할 것이라 생 각합니다. 우선, 빅테크들의 Capex 집행 기조가 2027년까지 확대되는 것과 함께 예상치를 뛰어넘는 AI 비즈니스 성과가 확인되고 있어 투자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은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7월 FOMC 이후 케빈 워시 연준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기도 했으나, 연준의 금리 예상 경로 가 덜 매파적으로 수정되었고, 금리 인상 예상 횟수가 연 2회에서 1회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10 년물 금리 급등에 따른 긴축 발작 가능성은 낮아졌습니다. 미국과 이란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노이 즈는 지속될 수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월 증시는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조정받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안도 랠리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며, 펀더멘털 훼손 없이 이익 증가세가 유효한 핵심 주도주 중심의 대응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글로벌 빅테크 업체의 수익성 우려와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의 확전으로 인한 유가 상승, 이로 인한 미국의 장기 금리 급등으로 인해 시장의 가격 조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한국 시장의 경우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쓸림이 심했던 상황이므로 가격 조정의 폭이 컸고 가팔랐습니다. 다만, 7월말 기준 KOSPI 12MF PER은 5배 수준으로 역사적 저점 수준에 위치해 있고 반도체 쓸림 현상 또한 주가 조정으 로 인해 완화된 것으로 현재 상황에서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반등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판 단됩니다.

- 반도체 업종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업종에 대한 관심을 재차 높일 계획 입니다. 다만, 과거와 같은 쓸림 현상이 재현되기보다는 반도체 가격 흐름과 주주환원 정책 등을 확인하 며 단계적인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 소재의 경우 정유 업종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정제 설비의 타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정제마진의 중장기적인 강세 흐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철 강 업종은 과거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에 높아졌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 립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여 알파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 산업재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수주가 확대되는 전력기기 업종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며 실적 호조가 지속되고 데이터센터용 엔진 증설 가능성이 높아 중장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은 조선업에 대해 관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자동차 업종은 미국이 중국산 로보 및 부품에 대한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 가치 가 부각될 수 있어 해당 이슈에 유의할 계획이며 유틸리티, 건설 업종은 국내 AI 데이터센터 건립과 함께 국내 원전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될 개연성이 높아 해당 이슈에 유의하며 기회를 모색하겠 습니다. 금융 업종은 시장의 반등 흐름과 함께 가격 매력과 배당수익률이 확보된 증권 업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7월 채권시장은 미-이란 간 양해각서 파기와 군사적 충돌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반등으로 금리가 급등하 며 국고 3년 금리가 한때 4.0% 선에 근접했습니다. 이후 국제유가가 80달러대로 반락하고 원/달러 환율 도 1,440원 수준까지 하향 안정되면서 금리 상방 압력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7월 금통위는 시장 예상대 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으나, 연속 인상 여부는 향후 발표될 주요 경제지표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입 장을 유지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성장 모멘텀과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는 내수 여건을 뒷받침하며 근 원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8월 말 정부 예산안에서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 채 상환 등이 제시될 경우 금리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으나, 추가 세수가 기금 확충이나 전략산업 투자 등에 활용될 경우 국고채 공급 부담은 시장 기대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상을 상당 부분 선반영한 수준이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 재정정책 및 국고채 수급 경계감이 남아 있는 만큼 당분간 국고채 금리는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에 국고채 3년 3.65~4.00%, 국고채 10년 4.15~4.50%의 금리 레인지를 전 망합니다. 펀드는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벤치마크 대비 중립 수준의 듀레이션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긴축 경계심에 따른 금리 변동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크레딧 스프레드가 연중 최 고 수준까지 확대됐으나, 7월 금통위 이후 전반적으로 축소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아진 절대금 리와 확대된 크레딧 스프레드에 따른 캐리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반도체 기업의 단기자금 유입 등이 더해지며 우량 등급을 중심으로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입니다. 향후 크레딧 시장은 높은 절대 금리와 캐리 매력이 크레딧물 수요를 뒷받침할 요인이나, 시장 전반의 매수 기반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 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8월 금통위와 정부 예산안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 경로와 수급 불확실성 이 잔존하는 만큼 크레딧 스프레드의 가파른 축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기준금리 경로 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국고채 금리가 안정될 경우 우량 등급과 단기물을 중심으로 스프레드 축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재확대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으 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과 금리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경우, 크레딧 투자심리 회복이 지연되 며 스프레드 축소세가 제한되거나 재차 확대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이에 특수/국고 3Y 28~38bp, 은행/국고 3Y 27~37bp, 회사채 AA-/국고 3Y 62~72bp, 여전채 AA-/국고 3Y 68~78bp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펀드는 펀드 사이즈가 100억 이하인 상황에서는 유동성이 좋은 국제 위주로 운용할 계획 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